

한국사회복지학

일반논문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김수정⁺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항목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각 비용 항목에 대해 기존 데이터 수집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이러한 총 비용을 우리나라의 GDP에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절대 빈곤을 기준 총 55조3,009억(GDP 대비 3.5%), 상대 빈곤을 기준 99조6,858억원(GDP 대비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에 비해 간접비용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비용 항목 중에서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 기준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산성 손실과 미취업/실직 등의 고용 관련 비용이었고, 그 다음에 범죄 비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부모와 자녀에게 동시에 개입하는 이세대 프로그램 실시, 빈곤 아동 같은 고위험 집단의 경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과 더불어 통합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 빈곤, 아동빈곤, 사회경제적 비용, 비용 추계

*본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 A01021376).

아동 빈곤 예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조사에 참여해 주신 25명의 전문가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제1저자, ⁺⁺교신저자

1. 서론

빈곤은 어느 국가에서나 상존하며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심사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에 해당하는 아동은 빈곤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위치에 있으므로 빈곤 문제는 아동의 복지와 권리의 실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의 빈곤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4,007 표본의 아동 가구를 조사한 결과, 최저 생계비 기준의 절대빈곤율은 9.45%이었고, 중위소득의 50%미만 기준의 상대적 빈곤율은 10.62%로 나타났다(정은희, 2015). 이 중에서 아동가구의 약 4%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이거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는 가구임을 고려해 볼 때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 아동은 전체 아동 중 538,000명(5.6%)~651,000명(6.7%)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29개 국가의 평균 빈곤율인 11%보다 약간 낮은 10.2%이며 순위로는 14위이긴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빈곤율의 감소폭이 작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은 아동빈곤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다(김미숙 외, 2013; 정은희, 2015).

아동 빈곤은 아동기가 신체, 정서, 인지 발달 등 모든 영역의 발달에서 결정적 시기라는 점에서 성인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김효진, 2008). 특히 빈곤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삶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가족, 이웃, 그리고 사회에까지 파급된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아동 빈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와 지속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ooks-Gunn and Duncan, 1997; Evans and Kim, 2007; Cohen et al., 2010; Duncan et al., 2010). 교육적인 측면에서 낮은 학업 성취나 낮은 학력, 학업 중퇴율 등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행동 측면에서 자살, 10대 임신, 흡연, 청소년 범죄 등의 청소년 문제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Exeter and Boyle, 2007; Ferguson et al., 2007; Murname, 2007; The Prince's Trust, 2007; Engle and Black, 2008). 또한 아동 빈곤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이혼 등에 영향을 미친다(장화정·김광혁, 2006; McGuinness and Schneider, 2007). 그리고 고용적인 측면에서 생산성 손실, 미취업이나 실직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세대 계승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할 수 있다(Gregg and Machin, 2001; Sigle-Rushton, 2004; Murname, 2007; The Prince's Trust, 2007). 특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아동의 빈곤 문제로 인해 증가된 복지 비용, 범죄 비용, 건강 비용, 그리고 감소된 생산성으로 인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년마다 우리 사회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Duncan et al., 2007).

아동 빈곤이 지속적이면서 장기적으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세대 계승을 통해 이어질 수 있는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7조에서는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명시하고 부모나 아동을 책임지는 보호자에게 필요한 경우에 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포함한 국가의 책임을 잘할 수 있도록 유엔에서는 2000년 9월 밀레니엄 개발목표(UN Millenium Development Goal: MDG)를 정하였고, 그 중에서 첫 번째 목표가 ‘빈곤퇴치’인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이재연, 2008). 하지만 아동의 빈곤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사용해야 하는 비용과 아동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공적 서비스 비용의 증가 및 국가 경제 성장을 제한하는 비용을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교해 본다면 그 차이는 상당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에 적절한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국가의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동빈곤에 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구는 아동 빈곤의 장단기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수량화했을 때 우리 사회가 연간 지불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이고,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 발전에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가져오는지를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빈곤 감소를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지와 이러한 예산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국가의 예산 편성 시 공무원이나 정책 입안자들을 설득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아동 빈곤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고, 이 비용이 GDP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Hirsch, 2008; Holzer et al., 2008; Blanden et al., 2010; Pearce, 2011; Hirsch, 2013; The Nippon Foundation, 2015). 이를 통해 각 국가에서는 아동 빈곤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연간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아동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 예산 수립에 반영하여 재정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자국의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적으로 아동 빈곤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해 주고, 이 분야에 있어서 정책 입안자들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 판단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국외의 경우, 아동 빈곤에 관한 연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축적되어 왔지만 최근에서야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연구가 수행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수행된 아동 빈곤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아동 빈곤의 현황 및 정책 방향(정은희, 2015), 아동 빈곤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김효진, 2008; 구인희 외, 2009; 정익중, 2009; 장희선·김기현, 2014), 빈곤 아동의 빈곤 인식(정선옥, 2011; 이수진 외, 2015) 등이 있다. 그리고 빈곤의 원인 및 영향(김미숙·배화옥, 2007), 아동 빈곤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장화정·김광혁, 2006; 이봉주·김광혁, 2007) 등의 연구를 통해 정책적 제언에 그치고 있을 뿐 아동 빈곤으로 인한 연간 사회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기 위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하다. 즉, 아동 빈곤 감소를 위한 각종 재정적 투자가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 빈곤 비용과 관련한 기초 자료가 오랜 기간 축적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동 빈곤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최근에서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빈곤에 관한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두었기에 실질적으로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초자료들이 부

족하여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의 전체 예산에서 아동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0.1% 수준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34개의 OECD국가 중에서 아동가족복지 지출이 32위에 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체 국가의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계획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김미숙 외, 2012; 이재연 외, 2015). 이러한 실증적 자료는 우리나라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우선주의 공무원들이나 정책 입안자에게 손익대비의 실질적인 자료 제공을 통해 빈곤 예방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한 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고, 이 비용이 우리나라 국민총생산량(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 빈곤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아동 빈곤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정책 마련과 재정 지원 및 투자 확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 고찰

1) 아동빈곤의 부정적인 영향

아동이 경험하는 빈곤은 성인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아동기는 신체적, 정서적, 지적 발달에 결정적 시기로서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오정수·정익중, 2013). 특히 아동 빈곤은 개인과 가족적인 측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빈곤 아동은 생산성 손실이나 미취업/실직할 가능성이 높아 국가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Blanden et al., 2010). 이처럼 아동 빈곤의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건강적인 측면, 관계적인 측면, 범죄적인 측면, 그리고 고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 빈곤은 아동의 건강에 장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vans and Kim, 2007; Duncan et al., 2010). 아동 빈곤은 아동과 청소년기의 우울 등 내재화 문제나 반항적 행동, 공격성 등 외현화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속적으로 성인기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upta et al., 2007; Reiss, 2013). 특히 Evans와 Cassells(2014)의 연구에서는 아동 빈곤이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폭력, 가족의 혼란,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등의 정서적 요인과 소음, 표준 이하의 주택 거주 등의 물리적 요인 등의 누적적 위험요인을 매개로 하여 학습된 무력감 등 성인기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 빈곤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는 다시 자살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Griggs and Walker, 2008; Björkenstam et al., 2017). 이는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15세~44세의 자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아동 빈곤이 자살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서도 입

증되었다(Exeter and Boyle, 2007).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동 빈곤은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장화정·김광혁, 2006; McGuinness and Schneider, 2007). 부모의 빈곤으로 인해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성인이 되어 가정 내에서 자녀에게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게 할 가능성이 높거나 배우자에게 폭력적이거나 폭력적인 반응을 더 많이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김재엽 외, 2007; Wyatt et al., 2000; Whitfield et al., 2003). 또한 아동 빈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또 다시 빈곤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을 높게 한다(Sigle-Rushton, 2004).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 빈곤은 성인이 되었을 때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거나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처할 수 있고, 이는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Conger et al., 2010).

범죄적인 측면에서 아동 빈곤은 청소년 비행이나 성인 범죄와도 유의한 관계가 있다. 모든 빈곤한 아동이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그중의 일부는 아동기의 빈곤으로 인해 범죄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정익중, 2009; Brooks-Gunn and Duncan, 1997; Griggs and Walker, 2008; Hirsch, 2008; Holzer et al., 2008; Pearce, 2011). 이와 관련하여 오정수와 정익중(2013)은 아동 빈곤이 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 및 우울 증후를 초래하고 이는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이어져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행동을 하게 하거나 높은 공격성을 갖게 하여 또래로부터 소외 및 비행친구와의 교제로 인해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 행동을 하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미국의 초기 성인 남자 범죄자 73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Ou and Reynolds, 2010)에서 유아 시기의 AFDC의 수급 여부가 초기 성인기의 범죄 행동의 예측 요인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실증적인 연구들(Brown and Males, 2011; Nikulina et al., 2011)은 아동 빈곤이 청소년이나 성인기의 범죄의 예측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 빈곤은 학업이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후 성인기에 생산성 손실, 미취업/실직 등 고용적인 측면과도 불가분 관계가 있다(Murnane, 2007; Hirsch, 2008). 아동 빈곤으로 인한 학업의 부실이 고용적인 측면에 이어지는 경로를 살펴보면, 아동 빈곤은 낮은 학업 성취, 학업 중퇴, 무단결석, 특수 학급 배치 등 교육적인 측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erguson et al., 2007; Engle and Black, 2008). 빈곤 아동은 빈곤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보충 수업이나 특수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Hirsch, 2006). 그리고 빈곤한 아동은 졸업하지 못하고 퇴학당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성인이 되어 비정규직이나 미취업/실직 등에 처할 가능성을 높여 소득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Murnane, 2007). 이러한 학업적인 측면 외에도 아동 빈곤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대규모의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아동 빈곤이 질병을 매개로 생산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Ziol-Guest et al., 2012)에서는 아동 빈곤이 고혈압, 관절염, 일상생활 활동을 제한하여 일하는 시간이나 수입 감소 등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빈곤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세대 계승을 통해 빈곤한 상황에 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이상은, 2008; The Prince's Trust, 2007).

2)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아동 빈곤이 한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에 장기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인식한 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아동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영국에서는 2020년까지 모든 아동이 삶의 출발만큼은 공평할 수 있도록 빈곤층 아동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를 발표한 이후 2000년대 초반 빈곤 아동 수는 이전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아동들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고, 그동안의 아동 빈곤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에 이르렀다(Blanden et al., 2010).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는 아동 빈곤이 개인과 사회에 장기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한 후 이 비용이 국내 총생산(GDP)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비용 분석적 측면에서 현재 아동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사회 경제에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를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아동 빈곤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한 결과, 연간 500억 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는데 이는 GDP 대비 3.8%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Holzer et al., 2008). 이때 추계된 비용 지표는 빈곤으로 인해 감소된 소득 비용, 범죄와 연관된 비용(경찰, 교도소, 안전 비용 등), 건강 관련 비용(병원 비용, 특수 교육 비용, 빈곤으로 인해 손실된 삶의 질과 양)이 조사된 비용 지표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아동빈곤으로 인한 환경적인 비용이나 공적 지출 등을 포함하지 못하였고, 빈곤으로 인한 소득, 범죄, 건강 부분도 과소 추정되었음을 논의하였다.

영국에서는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2008/09년 연간 250억 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irsch, 2008). 이는 최소 비용으로서 GDP 대비 최소 2%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비용 항목은 가정외 보호 비용(학대나 방임, 낮은 수입, 역기능, 부모의 부재 등), 건강 관련 비용, 특수교육을 포함한 학교 비용, 주택 지원 등 복지 비용, 지역 환경서비스 비용, 지역 기반 프로그램과 보조금, 범죄 비용, 생산성 손실이나 실업 급여 등의 비용이 포함되었다.

2011년 뉴질랜드에서도 연간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한 결과, 최소 63억에서 최대 166억3,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략 GDP 대비 3.5%에서 9.3%에 해당한다(Pearce, 2011). 이를 하나의 값으로 추정한다면 추정치(Point Estimate)는 80억 달러로 GDP의 4.5%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비용 추계에 포함된 비용으로는 건강 관련 비용, 교육 수준에 따른 생산성 비용, 청소년과 성인 등의 범죄 비용, 가사수당과 실업 수당 등의 사회복지 비용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The Nippon Foundation(2015)에서도 2015년에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추계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4조 엔이었는데 이는 2015년 GDP의 0.8%에 해당한다.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항목으로는 손실된 생애 소득 비용(15세~64세)과 그로 인한 연간 증가되는 세금 및 사회보장지급액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15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감소된 생애 소득비용을 산출하였고, 범죄 비용 등을 포함시키지 못하였기에 과소추정되었을 것이라 논의하였다. 만약 18세 이하 아동 전체를 포괄하여 추계한다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GDP의 14.4%(0.8% × 1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비용 추계 항목 선정 근거

구분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
가정외 보호 비용	X	●	X	X
건강 관련 비용(신체적, 정신적 비용)	●	●	●	X
학교 비용(특수 교육 외)	●	●	X	X
복지 비용(주택 지원, 기초생활수급, 장애 수급 등)	X	●	●	●
지역환경서비스 비용	X	●	X	X
지역 기반 프로그램과 보조금	X	●	X	X
범죄(청소년 범죄, 성인범죄로 인한 경찰, 사법 비용)	●	●	●	X
고용(생산성 손실, 미취업/실직 등)	●	X	●	●

주1. 비용에 포함됨 : ●,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X

주2. 미국: Holzer 외(2008), 영국: Hirsch(2008), 뉴질랜드: Pearce(2011), 일본: The Nippon Foundation(201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 등에서는 아동 빈곤의 감소를 위해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고 이 비용이 국가의 GDP에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편, 본 연구와 유사 분야에 해당하는 미국(Fang et al., 2012; Gelles and Perlman, 2012), 캐나다(Bowlus et al., 2003), 호주(Taylor et al., 2008), 일본(Wada and Igarahi, 2014), 터키(Basak et al., 2013) 등 외국의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역시 빈곤 연구와 같이 아동보호서비스, 가정외보호, 법집행, 의료, 특수교육, 정신건강서비스, 복지, 범죄, 생산성 손실 비용 등 추계 항목을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하되 미국이나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구분하여 비용 산출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해당 항목의 기초 자료가 축적되었기에 선행 연구 자료를 사용하면서 아동학대 유병율을 근거로 연간 비용이나 생애 비용을 산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추계한 비용 지표를 종합하여 살펴보되 외국에서 추계한 공통항목과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특수항목을 중심으로 비용 항목을 결정하고, 현재 아동 빈곤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인 직접비용과 아동이 빈곤을 경험하면서 성인으로 성장해서 발생하는 비용인 간접비용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외국의 빈곤 연구에서 고려한 가정외보호, 특수교육, 복지, 건강, 범죄, 고용 관련 비용을 포함하되 국내 상황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서비스와 이혼 비용 등(변화순, 2008; 김선숙·유민상, 2012)을 추가하고, 이러한 항목을 중심으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비용 항목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단지 다른 항목의 세부항목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아 내부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비용 항목상으로는 국가별로 큰 질적 차이는 없고 항목 내에서 양적인 차이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산출된 연간 비용이 2015년 국내 GDP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때 각각의 해당 항목의 비용에 대한 기초 자료가 충분히 있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기초 자료가 많지 않기에 축적된 기존 자료는 최대한 활용하되 자료가 없는 비용 항목의 경우에는 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통해 비용을 산출하고자 한다. 델파이 전문가 조사는 어느 누구

도 정답을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방법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관련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전종설 외, 2011; 김수정·정익중, 2016; Uegaki et al., 2007; Ramos et al., 2016).

3.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 먼저 아동빈곤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아동 빈곤으로 인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에 포함된 각각의 비용 산출을 위해 복지 비용(드림스타트, 기초생활수급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복지사업, 희망복지지원단, 임대주택사업), 가정외보호비용(가정위탁,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고용 비용 등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등의 관할 부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5년 예결산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그 이외의 비용 관련 자료들은 관련 사이트나 국내 선행 연구를 통해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2016년 10월~12월에 아동빈곤 관련 연구 경력 10년 이상의 교수 및 박사 11명과 10년 이상 임상경력이 있는 현장전문가 14명 등 총 25명을 섭외하여 이메일을 통해 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3회 실시하였다. 이때 각 횟수별 설문지는 이전 설문지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의견이나 분석 결과 등이 첨부되어 재구성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 빈곤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향후 자살할 확률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11문항의 질문을 한 후 평균값과 중위값의 결과 제시의 절차를 3회 동안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를 통해 합의된 수치를 직·간접비용 산출에 적용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동 빈곤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의 추정방법을 선택하였다. 첫째, 아동빈곤으로 인한 직접비용, 간접비용을 취합하여 손실 규모를 산출하였다. 이때 직접비용에서는 아동 빈곤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확률, 성학대가 발생할 확률, 가정외 보호를 받을 확률, 보호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 특수 교육을 받을 확률과 간접비용에서는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향후 자살할 확률,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 성인이 되어 이혼할 확률, 범죄자가 될 확률, 생산성 손실 확률, 미취업/실직을 경험할 확률 등을 델파이 분석 방법을 통해 구하였다. 이 기법은 특정 분야 전문가의 직관을 통해 아직 알려지지 않거나 일정한 합의가 없는 문제에 대한 집단지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황옥경 외, 2014; Hasson et al., 2000; Hsu and Sandford, 2007; Keeney et al., 2014; Slade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3차 설문까지 반복 진행하고, 이전 설문 결과를 통계치로 제시하여 피드백 해 줌으로써 합의된 최종 결과를 본 연구 분석에 적용했다. 둘째, 아동빈곤으로 인한 총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한 후 이 비용이 2015년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3)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아동 빈곤으로 인해 2015년 한 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복지 비용, 아동보호서비스 비용, 가정외보호 비용, 법집행 관련 비용, 특수교육 비용, 고용 비용 등의 직접비용과 건강 관련 비용, 이혼, 범죄, 생산성 손실 및 미취업/실직 등의 간접비용이 해당한다. 직접비용은 아동 빈곤으로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이고, 간접비용은 직접적인 재정의 손실은 아니지만 아동 빈곤의 영향과 관련된 비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접비용

직접비용은 복지 비용, 아동보호서비스 비용, 가정외보호 비용, 법집행 관련 비용, 특수교육 비용, 고용 비용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법집행 관련 비용, 특수교육 비용은 절대 빈곤율 4.0%와 상대 빈곤율 7.5%에 근거하여 각각의 비용을 산출하였다.

① 복지 비용

복지 비용은 기초생활수급비,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돌봄교실, 교육복지사업, 희망복지지원단, 복지관, 임대주택사업 비용 등이 해당한다. 이 중에서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복지사업, 임대주택사업 비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2015년 전국 운영비 예결산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기초생활수급비(생활+교육+의료+주거급여)나 희망복지지원단 비용은 2015년 예결산 자료에 18세 아동을 가진 빈곤 가정의 비율 20%(보건복지부, 2015)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돌봄 교실 비용은 2013년 결산 자료(정익중 외, 2013)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곱한 후 사용하였다. 복지관 비용은 2015년 전국 복지관 예결산 비용에 전체 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 17%(2015년 아동 인구수/전체 인구수)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이때 전국 복지관 총 운영비는 전국 16개 시도별로 유형별 각각 2개 기관씩 무작위로 선정한 후 (가형 평균 예산X가형 개수), (나형 평균 예산X나형 개수), (다형 평균 예산Xd형 개수)를 모두 더하여 추정하였다.

② 아동보호서비스 비용

아동보호서비스 비용은 아동 빈곤으로 인한 아동보호서비스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는 전국의 아동

보호전문기관과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총 운영비를 포함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총 운영비는 정부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성되는데 2015년 정부보조금(중앙정부+지방정부)은 2013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정부 보조금 총액(장화정, 2014)에서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자부담 비용은 평균적으로 총 운영비에서 41%를 차지하므로 2015년 정부보조금 총액에서 이 비율을 곱한 값을 사용하였다(보건복지부·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 그리고 2015년 정부 보조금과 자부담 비용을 합한 후 아동빈곤으로 인한 아동학대 비율 45%를 곱하여 사용하였다.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총 운영비용은 여성가족부를 통해 획득한 2015년 전국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비 총액에서 18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37.8%(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5)와 아동 빈곤으로 인한 성학대 발생 비율 0.16(델파이 조사)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아동보호전문기관 총 운영비와 해바라기아동센터 총 운영비를 더한 후 아동 빈곤으로 인한 아동보호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③ 가정외보호 비용

가정외보호 비용은 아동 빈곤으로 인해 가정외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 비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6개 시도(시군구)의 공무원들로부터 수집한 2015년 가정위탁, 그룹홈, 아동복지시설의 총 운영비 총액에 아동 빈곤으로 인해 가정외보호를 받을 비율 42%(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곱한 후 산출하였다.

④ 법 집행 관련 비용

법 집행 관련 비용은 재판 비용, 경찰 관련 비용, 교도소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 재판 비용은 2015년 전체 재판건수(대검찰청, 2016)에 국선변호사 비용 30만원, 아동 빈곤으로 인한 보호자 범죄 비율 28%(델파이 조사)를 곱한 후 절대 빈곤율 4%과 상대 빈곤율 7.5%를 각각 곱하여 산출하였다. 경찰 관련 비용은 2014년 경찰 총 비용(경찰청, 2015)과 물가상승률, 아동 빈곤으로 인한 보호자 범죄 비율 28%(델파이 조사)를 곱한 후 절대 빈곤율 4%과 상대 빈곤율 7.5%를 각각 곱하여 계산하였다. 교도소 비용도 2014년 연간 교도소 관련 총 비용(법무부, 2015)에 물가상승률, 아동 빈곤으로 인한 보호자 범죄 비율 28%(델파이 조사)를 곱한 후 절대 빈곤율 4%과 상대 빈곤율 7.5%를 각각 곱하여 산출하였다.

⑤ 특수교육 비용

특수교육 비용은 2015년 한해 동안 아동 빈곤으로 인해 특수교육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 이 비용은 2015년 교육부 유아 및 초중등교육 결산 총액(교육부, 2016)에 아동 빈곤으로 인해 특수교육을 받을 비율 19%(델파이 전문가 조사)와 절대 빈곤율 4%와 상대 빈곤율 7.5%를 각각 곱하여 추정하였다.

⑥ 고용 비용

고용 비용은 아동 빈곤으로 인한 고용 문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 비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획득한 2015년 한 해 동안 고용복지센터의 총 운영비에 18세 아동을 가진 가구의 빈곤 비율 0.20(보건복지부, 2015)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2) 간접비용

간접비용은 건강 관련 비용, 이혼 비용, 범죄 비용, 고용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비용의 경우, 모두 빈곤율을 곱하여 산출하였는데 절대 빈곤율 4.0%와 상대 빈곤율 7.5%에 근거하여 각각의 비용을 산출하였다.

① 건강 관련 비용

건강 관련 비용은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향후 정신 질환에 걸려 병원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자살로 인해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우선 빈곤 경험 아동이 성장하여 정신 질환으로 인한 병원 비용은 2013년 국민의료비 총액(통계청 e-나라지표, 2015)에 물가상승율과 아동 빈곤으로 인한 향후 정신질환에 걸릴 비율 16%(텔파이 전문가 조사)를 곱한 후 절대 빈곤율 4%와 상대 빈곤율 7.5%를 곱하여 각각 산출하였다. 자살 비용은 2015년 전체 자살 인구수(국가통계포털, 2016)에 평균 연봉(GNI), 13.19년(평균 근로 연수-평균 자살 나이), 아동 빈곤으로 인한 향후 자살 비율 13%(텔파이 전문가 조사)를 모두 곱한 후 절대 빈곤율 4%와 상대 빈곤율 7.5%를 곱하여 각각 산출하였다.

② 이혼 비용

이혼 비용은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성인이 되어 결혼 후 이혼하는 데 2015년 한 해 동안 소요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한다. 이 비용은 2010년 한 해 동안 이혼에 소요되는 총 비용(안중범 외, 2011)에 물가상승률과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결혼 후 이혼할 확률 21%(텔파이 전문가 조사)를 곱한 후 각각 절대 빈곤율 4%와 상대 빈곤율 7.5%를 곱하여 추정하였다.

③ 범죄 비용

범죄 비용은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범죄자가 되어 2015년 한 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 이 비용은 2010년 한 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총 범죄 비용(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에 물가상승률과 아동 빈곤으로 인해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비율 21%(텔파이 전문가 조사)를 곱한 후 절대 빈곤율 4%와 상대 빈곤율 7.5%를 각각 곱하여

산출하였다.

④ 고용 관련 비용: 생산성 손실, 미취업/실직 비용

고용 관련 비용은 2015년 한 해 동안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후유증으로 직장생활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생산성 손실 비용이나 미취업/실직 비용에 해당한다. 생산성 손실 비용은 2015년 총 인구수(국가통계포털, 2016)에 평균 연봉(GNI),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을 할 때 생산성 손실 비율 25%(텔파이 전문가 조사)를 곱한 후 절대 빈곤율 4%와 상대 빈곤율 7.5%를 곱하여 각각 산출하였다. 미취업/실직 비용도 2015년 총 인구수에 평균 연봉(GNI),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후유증으로 성인이 되어 미취업/실직할 비율 31%(텔파이 전문가 조사)를 곱한 후 절대 빈곤율 4%와 상대 빈곤율 7.5%를 곱하여 각각 산출하였다.

4. 연구결과

1) 아동빈곤으로 인한 연간 직접비용

아동 빈곤으로 인해 2015년에 연간 소요된 직접비용은 복지 비용, 아동보호서비스 비용, 가정외 보호 비용, 법집행 비용, 특수교육 비용, 고용 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때 법집행 관련 비용, 특수교육 비용은 절대 빈곤율 4.0%와 상대 빈곤율 7.5%에 근거하여 각각의 비용을 산출하였다.

먼저, 복지 비용은 기초생활수급비,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돌봄교실, 교육복지사업, 희망복지지원단, 복지관, 홈리스 관련 임대주택사업 운영비를 포함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비 3조6,871억8,200만원, 드림스타트 680억8,300만원, 지역아동센터 2,858억6,382만9,730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71억8,000만원, 돌봄교실 606억2,238만원, 교육복지사업 120억8,999만1,930원, 희망복지지원단 9억8,920만원, 복지관 956억3,978만7,373원, 홈리스 관련 임대주택사업 983억5,539만670원으로 총 4조4,348억1,550만7,073원으로 산출되었다.

아동 빈곤으로 인한 아동보호서비스 비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87억1,630만67원,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비는 10억8,610만6,317원으로 총 98억240만6,385원으로 추계되었다. 아동 빈곤으로 인한 가정외 보호 비용은 가정위탁,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총 운영비가 포함되는데 이는 1,237억445만7,702원으로 산출되었다. 아동 빈곤으로 인한 법 집행 관련 비용은 재판 비용, 경찰비용, 교도소 비용을 포함하는데 재판 비용이 절대 빈곤율 기준 692억5,741만8,720원, 상대 빈곤율 기준 1,298억5,766만100원이었고, 경찰 비용이 절대 빈곤율 기준 680억875만5,706원, 상대 빈곤율 기준 1,275억1,641만6,949원이었으며, 교도소 비용이 절대 빈곤율 기준 22억9,728만4,640원, 상대 빈곤율 기준 43억740만8,700원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법 집행 관련 비용의 총액은 절대 빈곤율 기준의 경우 1,395억6,345만9,066원이었고, 상대 빈곤율 기준의 경우 2,616억8,148만5,749원으로 추계되었다.

아동 빈곤으로 인한 특수교육 비용은 절대 빈곤을 기준 3,006억9,861만8,725원, 상대 빈곤을 기준 5,638억991만110원으로 계산되었다. 아동 빈곤으로 인한 고용 비용은 83억1,960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아동빈곤으로 인한 직접비용의 총액은 절대 빈곤을 기준 5조169억404만 8,951원이었고, 상대 빈곤을 기준 5조4,021억3,336만7,019원으로 추계되었다.

2) 아동 빈곤으로 인한 연간 간접비용

아동 빈곤으로 인해 2015년에 연간 소요된 간접비용은 건강 관련 비용, 이혼 비용, 범죄 비용, 고용 관련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건강 관련 비용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병원 이용 비용, 자살 비용을 포함하고, 고용 관련 비용은 생산성 손실비용, 미취업/실직 비용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비용의 모두 절대 빈곤을 4.0%와 상대 빈곤을 7.5%를 적용하여 각각의 비용을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 빈곤으로 인한 간접비용의 경우 절대 빈곤을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면, 건강 관련 비용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원 이용 비용이 5,992억8,960만원, 자살 비용이 290억4,100만8,832원으로 총 6,283억3,060만8,832원으로 추계되었다. 이혼 비용은 4,253억5,576만4,434원, 범죄 비용은 13조 8,804억5,823만9,600원으로 산출되었다. 고용 관련 비용은 생산성 손실 비용이 15조7,814억7,385만4,500원이었고, 미취업/실직 비용이 19조5,690억2,757만9,500원으로 총 35조3,505억143만 4,000원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아동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있는 간접비용의 총액은 50조2,840억1,757만9,500원(절대 빈곤을 기준)으로 추산되었다.

아동 빈곤으로 인한 간접비용의 경우 상대 빈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건강 관련 비용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원 비용이 1조1,236억6,800만원, 자살 비용은 544억5,189만1,560원으로 총 1조1,781억1,989만1,560원으로 추계되었다. 이혼 비용은 7,975억4,205만8,313원이었고, 범죄 비용은 26조 258억5,919만9,300원으로 산출되었다. 고용 관련 비용은 생산성 손실 비용이 29조5,902억6,347만 7,100원, 미취업이나 실직으로 인한 비용이 36조6,919억2,671만1,600원으로 총 66조2,821억9,018만 8,700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아동빈곤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간접비용의 총액은 94조2,837억1,133만7,873원(상대 빈곤을 기준)이었다.

3) 아동 빈곤으로 인한 연간 총비용

2015년 아동빈곤의 연간 총 사회경제적 비용을 살펴보면, 절대 빈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직접비용이 5조169억404만8,951원, 간접비용이 50조2,840억1,757만9,500원으로 총 55조3,009억2,162만8,451원이었다. 이는 2015년 GDP 1,558조5,916억원에 대비했을 때 3.5%로 아동 빈곤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고용 관련 비용(생산성 손실, 미취업/실직)이었고, 그 다음에 범죄 비용, 복지 비용(기초생활수급, 드림스타트

등), 건강 관련 비용, 이혼 비용 순으로 산출되었다.

상대 빈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5년 아동빈곤의 연간 총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이 5조 4,021억3,336만7,019원, 간접비용이 94조2,837억1,133만7,873원으로 총99조6,858억4,470만4,892원이었다. 이는 2015년 GDP 1,558조5,916억원에 대비했을 때 6.4%에 해당하는 것으로 절대 빈곤을 에 비해 상대 빈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동빈곤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고용 관련 비용(생산성 손실, 미취업/실직)이었고, 그 다음에 범죄 비용, 복지 비용(기초생활수급, 드림스타트 등), 건강 관련 비용, 이혼 비용 순으로 산출되었다.

<표 2> 아동빈곤 사회경제적 연간 총비용(절대 빈곤율, 상대 빈곤율 기준)

구분	직접비용	총액	%	구분	간접비용	총액	%
복지 비용	기초생활수급	3,687,182,000,000원	8.02	건강 관련	정신질환 병원이용	599,289,600,000원	1.14
	드림스타트	68,083,000,000원					
	지역아동센터	285,863,829,730원					
	청소년방과후	17,180,000,000원					
	돌봄교실	60,622,380,000원			자살비용	29,041,008,832원	
	교육복지사업	120,899,919,300원					
	희망복지지원단	989,200,000원					
	복지관	95,639,787,373원					
홀리스 관련사업	98,355,390,670원						
아동보 호전문 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8,716,300,067원	0.02	이혼	-	425,355,764,434원	0.77
	해바라기아동센터	1,086,106,317원					
가정외 보호	가정위탁,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123,704,457,702원	0.22	범죄	-	13,880,458,239,600원	25.10
법집행 관련	재판	69,257,418,720원	0.25	고용 관련	생산성 손실	15,781,473,854,500원	63.92
	경찰	68,008,755,706원					
	교도소	2,297,284,640원					
특수 교육	-	300,698,618,725원	0.54		미취업 /실직	19,569,027,579,500원	
고용	-	8,319,600,000원	0.02				
총 직접비용		5,016,904,048,951원		총 간접비용		50,284,017,579,500원	
2015 아동 빈곤의 연간 총 사회경제적 비용(절대 빈곤율 기준)					55,300,921,628,451원		

구분	직접비용	총액	%	구분	간접비용	총액	%
복지 비용	기초생활수급	3,687,182,000,000원	4.45	건강 관련	정신질환 병원이용	1,123,668,000,000원	1.18
	드림스타트	68,083,000,000원					
	지역아동센터	285,863,829,730원					
	청소년방과후	17,180,000,000원					
	돌봄교실	60,622,380,000원			자살비용	54,451,891,560원	
	교육복지사업	120,899,919,300원					
	희망복지지원단	989,200,000원					
	복지관	95,639,787,373원					
	홈리스 관련사업	98,355,390,670원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8,716,300,067원	0.01	이혼 비용	-	797,542,058,313원	0.80
	해바라기아동센터	1,086,106,317원					
가정외 보호	가정위탁,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123,704,457,702원	0.12	범죄 비용	-	26,025,859,199,300원	26.11
법집행 관련	재판	129,857,660,100원	0.26	고용 관련	생산성 손실	29,590,263,477,100원	66.49
	경찰	127,516,416,949원					
	교도소	4,307,408,700원					
특수 교육	-	563,809,910,110원	0.57	미취업/ 실직	36,691,926,711,600원		
고용	-	8,319,600,000원	0.01				
총 직접비용		5,402,133,367,019원		총 간접비용		94,283,711,337,873원	

2015 아동빈곤의 연간 총 사회경제적 비용(상대 빈곤율 기준) 99,685,844,704,892원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 빈곤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를 위해 문헌고찰을 실시하고 텔파이 전문가 조사를 통해 비용 항목의 구성 요소와 점유 비율 등을 파악한 후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2015년에 해당하는 연간 총 비용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비용이 우리나라 경제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2015년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이 제시한 절대 빈곤율(4%)을 적용했을 때 총 55조3,009억2,162만8,451원이었고, 상대 빈곤율(7.5%)을 적용했을 때 총 99조6,858억4,470만4,892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 총생산량인 GDP에 대비했을 때 각각 3.5%(절대 빈곤율 기준)와 6.4%(상대 빈곤율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 기준 모두 아동 빈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절대 빈곤율을 기준(GDP 대비 3.5%)으로 했을 때 감소된 소득 비용, 범죄 관련 비용, 건강 관련 비용, 특수교육 비용 등의 항목만을 가지고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하였을 때 연간 총 500만 달러로 GDP 대비 3.8%로 추계한 미국의 연구결과(Holzer et al., 2008)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에서 Pearce(2011)가 생산성 손실 비용, 범죄 비용, 병원 비용, 복지 비용을 가지고 추계했을 때 GDP 대비 최소 3.5%에서 최대 9.3%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비교적 유사하였다. 영국과 비교해 볼 때 2008/2009년 최소 비용을 기준으로 GDP 대비 2%로서 우리나라의 절대 빈곤을 기준 비용보다 1.7% 정도가 낮지만 Hirsch(2013)의 주장에 의하면 2020년까지 아동 빈곤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GDP 대비 3%가 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절대 빈곤을 기준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추계한 아동 빈곤 사회경제적 비용(GDP 대비 0.8%)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일본의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The Nippon Foundation, 2015)의 경우, 15세 한 학년만을 대상으로 비용을 산출했기 때문으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면 상당한 비용이 추계될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에서 아동 빈곤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세계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절대 빈곤을 기준의 경우에 직접비용이 5조169억404만8,951원, 간접비용이 50조2,840억1,757만9,500원이었고, 상대 빈곤을 기준 경우에는 직접비용이 5조4,021억3,336만7,019원, 간접비용이 94조2,837억1,133만7,873원으로 간접비용이 각각 직접비용의 10배(절대 빈곤을 기준), 17배(상대 빈곤을 기준)로 훨씬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와 달리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에서 진행한 연구들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의 아동빈곤 사회경제적 비용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관계를 이들 연구와 비교하기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연구(문유경, 2009; 정익중 외, 2009; Gelles and Perlman, 2012; Wada and Igarahi, 2014)가 모두 직접비용에 비해 간접비용이 훨씬 큰 것과 유사한 연구결과이다. 이는 아동 빈곤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에 비해 피해로 인한 그 부정적인 영향이 성인이 되어서 범죄나 생산성 손실 등으로 이어져 간접비용이 훨씬 크게 나타난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구인회, 2002; 이상은, 2008; Wagmiller and Adelman, 2009)에서 빈곤은 세대간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아동은 빈곤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피해자가 되면서 빈곤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 때문에 범죄자나 새로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 빈곤을 조기에 예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비용 항목의 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성 손실과 미취업 등을 포함한 고용 관련 비용이 절대 빈곤율(64%), 상대 빈곤율(67%)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 전체 항목 중에서 1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5년 GDP 대비 2.3%(절대 빈곤을 기준)에서 4.3%(상대 빈곤을 기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빈곤 사회경제적 비용 항목 중에서 생산성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의 연구결과(Hirsch, 2008; Holzer et al., 2008; Pearce, 2011; The Nippon Foundation, 2015)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 수준에 따라 생산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간주하여 비용을 계산했을 때 GDP 대비 최소 1.24%에서 최대 5.79%에 이른다고 보고한 뉴질랜드 Pearce(2011)의 연구결과와 그 범위가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

지만 전체 비용 중에서 아동 빈곤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상당함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한 개인이 아동 빈곤의 영향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해서 다시 빈곤의 악순환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심각하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의 The Nippon Foundation(2015)의 경우에는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른 항목을 제외하고 생산성 손실과 그로 인해 연간 증가되는 세금 및 사회보장 지급액만을 전체 비용으로 고려한 점에 비추어볼 때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건강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한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 아동 빈곤으로 인한 연간 피해는 절대 빈곤을 기준 55조3,009억원, 상대 빈곤을 기준 총 99조6,858억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빈곤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빈곤의 세대 간 전이가 심각하므로 빈곤 아동의 조기 개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Heckman, 2008; Reynolds et al., 2011)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빈곤한 아동에게 1불 조기개입에 투자하면 12불이 돌아온다는 식의 투자비용보다 투자비용 자금 회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어린 시기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어린 시기에 보강해준 인적 자본은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므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보다 높은 투자성적을 거둘 수 있다(Heckman and Lochner, 2000).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한 아동의 조기개입을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아동복지에 적절한 국가 예산 배분이다. 하지만 아동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제외한 아동복지 관련 복지예산은 약 3,151억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57조6,798억 원의 0.55%에 불과하며, 보건복지 일반회계 예산 33조 919억 원 대비 0.95%에 해당한다(최영, 2016). 이번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약 4.9% 증가하였지만 이는 아동관련 보건의료 예산 중 모자보건사업과 어린이예방접종 관련 예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아동복지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복지 예산을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비해 보면, 절대 빈곤을 기준 아동 빈곤 사회경제적 비용(55조3,009억원)의 5.7%에 해당하고, 상대 빈곤을 기준 3.2%(99조 6,858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해 아동복지 예산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빈곤 아동의 개입을 위해서는 아동과 부모에 대한 이세대(two-generation)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자녀에게 동시에 개입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아동 빈곤으로 인한 직접비용에 비해 간접비용이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접비용은 빈곤한 아동이 성장하여 빈곤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서 직접비용에 비해 어마어마한 비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빈곤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빈곤 아동의 개입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개입이 병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빈곤 아동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부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빈곤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부모와 자녀를 분리할 수 없음에도 부모와 자녀에게 동시에 접근하

기 보다는 자녀 중심 프로그램이거나 성인 중심 프로그램으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오정수·정익중, 2013).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빈곤 아동의 부모와 자녀에게 동시에 개입하는 이세대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다. 이세대 프로그램은 가족통합서비스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좀 더 이론적·실천적으로 아동개입과 가족개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외국에서도 빈곤의 세대 계승을 끝내기 위해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Chase-Lansdale and Brooks-Gunn, 2014; The Aspen Institute, 2014).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자녀를 위해 가정방문이나, 유아교육, 외상에 노출된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건강과 교육 서비스를, 부모를 위해 육아, 아동학대나 가정 폭력 예방, 정신건강 문제 치료, 직업 훈련 등을 포함한다. 이세대에 대한 동시적 접근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 부모의 경제적 자활 능력은 물론 양육능력과 가족자원의 증대를 가져와 자녀 중심 프로그램에서 얻은 효과를 계속 지속시키고,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정익중, 2002).

셋째, 빈곤 아동 같은 고위험 집단의 경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과 더불어 통합적 개입이 요청된다. 본 연구결과 아동빈곤 사회경제적 비용의 전체 항목 중에서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 기준 모두 생산성이나 미취업 등 고용 관련 비용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범죄 비용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으로 한 아동이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비용들이 손해를 미치는 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빈곤 아동과 같은 고위험 집단은 장기적이면서 지속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통합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현재 드림스타트에는 빈곤 아동으로 발견된 고위험 집단의 아동들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통합적 개입을 받고 있다. 하지만 드림스타트에 발굴되어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은 빈곤 아동들 중 소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 아동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존 빈곤층 외에 의식주, 의료, 교육 등 기본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분이 급변하고 이주가 빈번하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찾아내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와 IMF 체제와 함께 중산층이 무너지고 다수가 빈곤층으로 급전직화했다. 새로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지만 빈곤층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이들은 이전에 심각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 보지 않아 빈곤에 대한 내성과 대처능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직장인, 가장 역할을 맡은 여성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전통적인 빈곤층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신빈곤층은 일할 능력이 있고 일을 하는데도 빈곤의 늪에 빠져 벗어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계층의 아동은 발견되기 쉽지 않으므로 영유아건강검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통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빈곤아동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많은 빈곤 아동들이 드림스타트와 같은 장기적이고 지속적 개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드림스타트는 12세까지만 개입하여 그 이후에 대한 개입이 부족하므로 그 이후에도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한 연구로서 큰 의의가 있으며

아동 빈곤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빈곤 아동을 잠재적 범죄자나 이혼자 등으로 언급한 것은 빈곤 아동들이 모두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통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본 연구는 이를 줄이기 위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 보여주는 것이므로 피해자 비난하기(victim blaming)가 아니라 피해자 옹호하기(advocating victim)라는 관점에서 기술된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아동 빈곤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로서 이러한 연구는 일회성 분석으로 변화의 경향이나 추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외국과 같이 이러한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는 3년마다 한 번씩 또는 아동복지법의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처럼 적어도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용 항목의 기초 자료 부족으로 인해 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통해 비용 산출을 시도하였기에 과소 추정되었거나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비용 항목 선정부터 델파이 조사(Uegaki et al., 2007; Ramos et al., 2016)를 통해 선정하거나 분석의 다각화(triangulation)를 위해 국내 또는 OECD 국가의 기초자료(해당 항목의 비용이나 빈곤으로 인한 해당 항목 발생 확률 등)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비용 산출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확보한 다른 자료 역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한 후 비용 산출을 시도하고,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15, “2014년도 경찰청 결산보고서”, <http://likms.assembly.go.kr/>.
- 교육부, 2016, “2015년도 교육부 결산보고서”, <https://www.moe.go.kr/>.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82-112.
- 구인회·박현선·정익중·김광혁, 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16(1): 57-79.
- 국가통계포털, 2016, “2015년 사망원인통계, 1인당 국민총소득, 총 인구수”, <http://www.kosis.kr>.
- 김미숙·배화옥, 2007, “한국 아동빈곤율 수준과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보건복지포럼』, 27(1): 3-26.
- 김미숙·전진아·하태정·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정익중·이주연·하태정, 2012,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걱정 아동복지지출규모추계』,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선숙·유민상, 2008, “OECD 국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아동학대 발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률 비교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6(4): 591-617.
- 김수정·정익중, 2016,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한국아동복지학』, 52: 25-50.
- 김재엽·이지현·정윤경, 2007, “부부폭력가해자의 성장기 아동학대 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부모역할만족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291-312.
- 김효진, 2008, “빈곤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 분석”, 『보건복지포럼』, 139: 33-42.
- 대검찰청, 2016, “2015 범죄분석”, <http://www.spo.go.kr/>.
- 문유경, 2009,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 추정: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2』,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법무부, 2015, “2014년도 법무부 결산보고서”, <http://likms.assembly.go.kr/>.
- 변화순, 2008, “제2차 경제위기 동안 가족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http://klowf.kwdi.re.kr/>.
- 보건복지부,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 『학대아동보호사업 평가 및 성과분석』, 세종: 보건복지부.
- 안종범·우석진·민현주·류연규, 2011, 『가족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가족정책효과 분석』, 서울: 성가족부.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5, 『2013-2014 해바라기센터 연감』,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 오정수·정익중, 2013, 『아동복지론 제2판』, 서울: 학지사.
- 이봉주·김광혁, 2007, “가족빈곤과 가족구조가 아동학대와 방임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1(3): 333-359.
- 이상은, 2008, “한국에서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 『한국사회복지학』, 60(2): 53-76.
- 이수진·이정애·이은희·정익중, 2015, “아동의 빈곤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6(4): 29-57.
- 이재연, 2008, “빈곤아동도 공평하게 출발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포럼』, 139: 33-42.
- 이재연·박은미·황옥경·김형모·이은주·강현아, 2015,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 장화정, 2014, “아동학대의 현황과 쟁점”, 『2014년 한국아동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아동복지학회.
- 장화정·김광혁, 2006, “빈곤과 가족소득이 아동 신체학대에 미치는 영향: 부와 모의 학대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0(2): 237-258.
- 장희선·김기현, 2014,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누적적 위험요인의 효과분석”, 『한국아동복지학』, 47: 185-216.
- 전종설·김세완·정익중·조상미·김선민, 2011, “도박 중독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9: 129-154.
- 정선옥, 2011, “빈곤 아동의 빈곤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181-201.
- 정은희, 2015, “아동빈곤 현황과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220: 47-55.
- 정익중, 2002, “빈곤 편모가족을 위한 이세대(二世代) 프로그램”, 『사회과학연구』, 8: 231-258.
- 정익중, 2009, “빈곤과 비행 발달체계의 역동적 관계”, 『아동학회지』, 30(3): 113-125.
- 정익중·김성천·송재석, 2009, “아동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2): 371-389.
- 정익중·김홍원·길은배·양애경·양계민·김광혁, 2013, 『방과후 서비스 전달체계연구』, 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이화여대 산학협력단.
- 최영, 2016,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아동·청소년 분야”, <http://www.peoplepower21.org>.
- 통계청 e-나라지표. 2015. “GDP 대비 국민의료비 추이, 2014 고용보험지출액”, <http://www.index.go.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015 빈곤통계연보”, <http://www.mohw.go.kr/>.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III): 범죄의 사회경제적 비용추계』,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옥경·홍승애·송미령·김젤나, 2014, “청소년친화마을 지표개발 연구”, 『아동과 권리』, 18(4): 575-600.
- Basak, M., Demirel, D., and Sezer, E., 2013, *Economic Costs of Violence against Young Children in Turkey*, Istanbul: Bernard van leer Foundation.
- Björkenstam, C., Kosidou, K., and Björkenstam, E., 2017, “Childhood adversity and risk of suicide: Cohort study of 548,721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in Sweden”, *British Medical Journal*, 357: j1334.
- Blanden, J., Hansen, K., and Machin, S., 2010, “The economic cost of growing up poor: Estimating the GDP loss associated with child poverty”, *Fiscal Studies*, 31(3): 289-311.
- Bowlus, A., McKenna, K. Day, T., and Wright, D., 2003, *The Economic Costs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in Canada*, Report to the Law Commission of Canada.
- Brooks-Gunn, J., and Duncan, G. J., 1997, “The effect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2): 55-71.
- Brown, E., and Males, M., 2011, “Does age or poverty level best predict criminal arrest and homicide rate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Justice Policy Journal*, 8(1): 1-30.
- Chase-Lansdale, P. L., and Brooks-Gunn, J., 2014, “Two-generation programs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Future of Children*, 24(1): 13-39.
- Cohen, S., Janicki-Deverts, D., Chen, E., and Matthews, K. A., 2010, “Childhood socioeconomic status

- and adult health”,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186: 37–55.
- Conger, R. D., Conger, K. J., and Martin, M. J., 2010, “Socioeconomic status, family processes, and individual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3): 685–704.
- Duncan, G. J., Ludwig, J., and Magnuson, K. A., 2007, “Reducing poverty through preschool interventions”, *The Future of Children*, 17(2): 143–160.
- Duncan, G. J., Ziol-Guest, K. M., and Kalil, A., 2010, “Early-childhood poverty and adult attainment, behavior, and health”, *Child Development*, 81(1): 306–325.
- Engle, P. L., and Black, M. M., 2008, “The effect of poverty on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al outcome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136(1): 243–256.
- Evans, G. W., and Cassells, R. C., 2014, “Childhood poverty, cumulative risk exposure, and mental health in emerging adults”,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2(3): 287–296.
- Evans, G. W., and Kim P., 2007, “Childhood poverty and health: Cumulative risk exposure and stress dysregulation”, *Psychological Science*, 18(11): 953–957.
- Exeter, D. J., and Boyle, P. J., 2007, “Does young adult suicide cluster geographically in Scotland?”,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61(8): 731–736.
- Fang, X., Brown, D., Florence, C., and Mercy, J., 2012, “The economic burden of child maltrea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implications for prevention”, *Child Abuse and Neglect*, 36(2): 156–165.
- Ferguson, H., Bovaird, S., and Mueller, M., 2007, “The impact of poverty on educational outcomes for children”, *Paediatrics and Child Health*, 12(8): 701–706.
- Gelles, R. J., and Perlman, S., 2012, *Estimated Annual Cost of Child Abuse and Neglect*, Chicago IL: Prevent Child Abuse America.
- Gregg, P., and Machin, S., 2001, “Childhood experiences, educational attainment and adult labour market performance”, 129–150, in *Child Well-being,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s: What do We Know?*, edited by Vleminckx, K., and Smeeding, T. M., Bristol, UK: Policy Press.
- Griggs, J., and Walker, R., 2008, *The Cost of Child Poverty for Individuals and Society*, York: JRF.
- Gupta, R. P.-S., de Wit, M. L., and McKeown, D., 2007, “The impact of poverty on the current and future health status of children”, *Paediatrics and Child Health*, 12(8): 667–672.
- Hasson, F., Keeney, S., and McKenna, H., 2000, “Research guidelines for the Delphi survey techniqu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2(4): 1008–1015.
- Heckman, J. J., 2008, “Schools, skills and synapses”, *Economic Inquiry*, 46(3): 289–324.
- Heckman, J. J., and Lochner., 2008, “Rethinking myths about education and training: Understanding the sources of skill formation in a modern economy”, 47–83, in *Securing the Future: Investing in Children from Birth to College*, edited by Danziger, S., and Waldfogel, J.,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Hirsch, D., 2006, *The Cost of Not Ending Child Poverty: How We can Think about it, How it might be Measured, and Some Evidence*, York: JRF.
- Hirsch, D., 2008, *Estimating the Costs of Child Poverty*, York: JRF.
- Hirsch, D., 2013, “An estimate of the cost of child poverty in 2013”, <http://www.cpag.org.uk/>.

- Holzer, H. J., Schanzenbach, D. W., Duncan, G. J., and Ludwig, J., 2008, "The economic costs of childhood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hildren and Poverty*, 14(1): 41-61.
- Hsu, C., and Sandford, B., 2007, "The Delphi technique: Making sense of consensu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and Evaluation*, 12(10): 1-8.
- Keeney, S., Hasson, F., and McKenna, H., 2014, "Consulting the oracle: Ten lessons from using the Delphi technique in nursing research",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3(2): 205-212.
- McGuinness, T., and Schneider, K., 2007, "Poverty, child maltreatment, and foster care",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iatric Nurses Association*, 13(5): 296-303.
- Murname, R. J., 2007, "Improving the education of children living in poverty", *The Future of Children*, 17(2): 161-182.
- Nikulina, V., Widom, C. S., and Czaja, S., 2011, "The role of childhood neglect and childhood poverty in predicting mental health, academic achievement and crime in adulthood",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8(3-4): 309-321.
- Ou, S.-R., and Reynolds, A. J., 2010, "Childhood predictors of young adult male crim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8): 1097-1107.
- Pearce, J., 2011, "An estimate of national costs of child poverty in New Zealand", <http://www.analytica.org.nz>.
- Ramos, D., Arezes, P., and Afonso, P., 2016, "Application of the Delphi Method for the inclusion of externalities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alysis", *DYNA*, 83(196): 14-20.
- Reiss, F., 2013, "Socioeconomic inequalities and mental health proble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Social Science and Medicine*, 90: 24-31.
- Reynolds, A. J., Temple, J. A., White, B. A., Ou, S. R., and Robertson, D. L., 2011, "Age 26 cost-benefit analysis of the child-parent center early education program", *Child Development*, 82(1): 379-404.
- Sigle-Rushton, W., 2004, "Intergenerational and life-course transmission of social exclusion in the 1970 British cohort study", <http://eprints.lse.ac.uk/>.
- Slade, S. C., Dionne, C. E., Underwood, M., and Buchbinder, R., 2014, "Standardized method for reporting exercise programmes: Protocol for a modified Delphi study", *BMJ Open*, 4(12): e006682(1-5).
- Taylor, P., Moore, P., Pezzullo, L., Tucci, J., Goddard, C., and De Bortoli, L., 2008, *The Cost of Child Abuse in Australia, Melbourne: Australian Childhood Foundation and Child Abuse Prevention Research Australia*.
- The Aspen Institute., 2014, "Two-generation playbook", <http://ascend.aspeninstitute.org/>.
- The Nippon Foundation, 2015, "子ども の 貧困 の 社会的 損失 推計", <http://www.nippon-foundation.or.jp/>.
- The Prince's Trust., 2007, *The Cost of Exclusion: Counting the Cost of Youth Disadvantage in the UK*, London: The Prince's Trust.
- Uegaki, K., de Bruijne, M. C., Anema, J. R., van der Beek, A. J., van Tulder, M. W., and van Mechelen, W., 2007, "Consensus-based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for estimating the costs of health-related productivity loss from a company's perspective",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Environment and Health, 33(2): 122-130.

- Wada, I., and Igarahi, A., 2014, "The social costs of child abuse in Japa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46: 72-77.
- Wagmiller, R. L., and Adelman, R. M., 2009, *Childhood and Intergenerational Poverty: The Long-term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
- Whitfield, C. L., Anda, R. F., Dube, S., and Felitti, V. J., 2003, "Violent childhood experiences and the risk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adults: Assessment in a large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2): 166-185.
- Wyatt, G. E., Axelrod, J., Chin, D., Vargas Carmona, J., and Burns Loeb, T., 2000, "Examining patterns of vulnerability to domestic violence among African American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6(5): 495-514.
- Ziol-Guest, K. M., Duncan, G. J., Kalil, A., and Boyce, W. T., 2012, "Early childhood poverty, immune-mediated disease processes, and adult productivity",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9 (Supplement 2): 17289-17293.

Estimating the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Poverty

Kim, Soo Jung

(Ewha Womans University)

Chung, Ick-Joo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stimated the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poverty.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present study organized component categories for direct and indirect costs of child poverty, and estimated the cost of each category in 2015 through the collection of existing data and Delphi survey techniques among experts. The total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poverty were compared to Korea's GDP.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poverty in Korea in 2015 ranged from 55 trillion KW(3.5% of GDP) to 99 trillion KW(6.5% of GDP). Second, the indirect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poverty are much higher than the direct costs. Third, among the total cost categories, costs related to productivity loss and unemployment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of both the socioeconomic costs based upon absolute poverty and relative poverty. Crime costs are the second largest.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the importance of early intervention for children in poverty; implementation of two-generation program that intervenes simultaneously with parents and children; and long-term, continuous and integrated intervention for high-risk groups such as poor children.

Keywords : poverty, child poverty, socioeconomic costs, cost estimation

[논문 접수일 : 17. 02. 18, 심사일 : 17. 03. 13, 게재 확정일 : 17. 05. 24]